KOSME
이슈포커스
2022-02호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동향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2022. 3 |

KOSME
이슈포커스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연구실

Contents

요 약 1

01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동향 조사 개요 3

02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동향 조사 세부 내용 6

1.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식과 준비수준 6
2. 원자재 수급 현황 9
3. 공급망 변화에 따른 영향과 어려움 12
4.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애로사항과 필요 지원 정책 15

03 정책적 시사점 17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구분	내 용
1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식과 준비수준	· 응답 **中企**의 **10곳 중 4곳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응답은 18.0% 불과, 10곳 중 7곳은 대응 준비계획 부재** * 준비도 : 준비계획 없음(69.0%), 준비할 계획(13.0%),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18.0%) · **전기·전자, 화공, 기계 업종의 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대비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 수준 양호** * "준비됐거나 준비 중" 응답 비율 : 전기·전자(30.4%), 화공(22.9%), 기계(19.0%) ↔ 전체(18.0%) * 수출(33.3%) ↔ 내수(15.5%)/ 수도권(20.1%) ↔ 비수도권(15.9%)
2 中企 원자재 수급 현황	· 응답 **中企**의 **원자재 조달처는 국내 조달·자체 생산, 중국, 미국, 일본 순** * 원자재 조달처 : 국내 조달·자체생산(50.6%), 중국(24.7%), 미국(6.0%), 일본(4.4%), 유럽(3.5%) 순 * 전기·전자(44.4%), 섬유(50.0%) 업종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생산 자립도도 낮은 편 · **원자재 수입 형태는 원재료(55.2%) 비중이 가장 높은 편** * 수입형태 : 원재료(55.2%), 중간재(29.1%), 완제품(15.7%)
3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영향과 어려움	· 응답 **中企**의 **대부분(79.6%)은 공급망 변화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 * 공급망 변화 영향 : 부정적(79.6%), 영향없음(13.4%), 긍정적(7.0%) · 생산단계 중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단계**는 **원자재 수급 단계** * 원자재 수급단계(53.3%), 중간재 조달 단계(27.0%), 생산단계(8.8%), 최종 납품 단계(10.9%) · **공급망 변화로 가장 큰 어려움**은 **원자재 수급과 물류·운송 차질** * 원자재 수급(50.0%), 물류·운송 차질(19.8%), 공장생산 차질(13.5%), 납품처 수출계약 취소(8.7%)
4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애로사항과 지원 정책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체 조달처 발굴과 자금 부족** * 대체 조달처 발굴(31.3%), 원부자재·재고 확보 자금 부족(29.0%), 신규거래처 발굴(22.2%), 생산설비 확충 자금부족(9.1%), 자체 기술개발 애로(4.0%) ·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정책자금, 대체 조달처 발굴, 원자재 비축 희망** * 원부자재·생산설비 확충 정책자금(47.9%), 대체 조달처 발굴(15.3%), 원자재 비축 확대(12.7%)
5 정책적 시사점	· 응답 中企의 **10곳 중 7곳은 공급망 대응 준비계획이 없어, 준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수출여부 등에 따라 대응 준비도 차이가 있어 **업종별 ·지역별 정책수요자 특성에 맞는 세분화되고 맞춤화된 정책 지원 필요** · 응답 中企는 **원자재 수급 단계(53.3%)**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관련 **가장 큰 어려움**도 **원자재 수급 애로**(50.0%)인 것으로 나타나 **원자재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원자재 수급단계, 중간재 조달 단계, 생산단계, 최종 납품 단계 등 **생산활동 단계별 글로벌 공급망 지원 체계 구축** * 원부자재 구입 정책자금 → 대체 수입처 발굴, 생산거점 조사 → 생산확충 정책자금 → 운송차질, 물류지연 애로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 핵심 품목 신속통관 등 · **중소기업 공급망 안정성 지원**을 위하여 ①**원자재 구입과 재고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국가별 대체 조달처 DB 구축 등을** 통한 **공급망 애로 해소** ②**핵심기술 인력지원, 공급망 디지털화** 등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③**국내 생산 기반 마련,** 지역·업종 맞춤형 공급망 진출 지원 등 **공급망 대응 기반 구축** 등 필요

01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동향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반도체 수급 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주요 리스크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대
-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 준비수준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중진공 정책모니터링단 1,000개사
조사기간	◆ '22. 01월 18일(화) ~ 01월 25일(화)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선 및 SMS, E-mail 등 조사
표본크기	◆ 유효응답 기준 300개
표본오차	◆ 전체 95% 신뢰수준에서 ±5.67%P

○ 조사 내용

구 분	주요내용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식과 준비수준	◆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식과 준비수준 ◆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책 방안
中企 원자재 수급 현황	◆ 中企 원자재 주요 수입국, 수입국 의존도, 수입형태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영향과 어려움	◆ 공급망 변화에 따른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계 ◆ 공급망 변화에 따른 어려움과 기회요인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애로사항과 정부 필요 지원정책	◆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애로사항 ◆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필요 지원정책

○ 응답자 특성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전 체		300	100.0%
지역	서울	43	14.3
	인천	15	5.0
	경기	91	30.3
	대전·세종	5	1.7
	충남	9	3.0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지역	충북	11	3.7
	강원	6	2.0
	전북	18	6.0
	광주	10	3.3
	전남	11	3.7
	제주	2	0.7
	대구	8	2.7
	경북	24	8.0
	울산	20	6.7
	부산	6	2.0
	경남	21	7.0
매출액 (21년도)	5억 미만	15	5.1
	10억 미만	28	9.4
	50억 미만	118	39.7
	100억 미만	51	17.2
	300억 미만	64	21.5
	300억 이상	21	7.1
종업원 수	5인 미만	46	15.3
	10인 미만	55	18.3
	50인 미만	156	52.0
	100인 미만	30	10.0
	100인 이상	13	4.3
업종 대분류	금속	39	13.0
	기계	58	19.3
	화공	35	11.7
	전기·전자	23	7.7
	섬유	15	5.0
	식품	22	7.3
	정보처리	22	7.3
	유통	58	19.3
	기타	28	9.3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업종 중분류	자동차	17	5.7
	기계·장비	32	10.7
	금속가공	34	11.3
	석유화학	20	6.7
	시멘트	0	0.0
	고무·플라스틱	5	1.7
	전자부품	20	6.7
	전기장비	16	5.3
	식료품	40	13.3
	섬유제품	13	4.3
	정보처리	17	5.7
	기타	86	28.7
내수/수출	내수기업	258	86.0
	수출기업	42	14.0
창업기업 여부	창업기업	81	27.0
	창업기업 아님	219	73.0

02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동향 조사 세부 내용

1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식과 준비수준

1 응답 中企 10곳 중 4곳 공급망 변화 체감, 업종별 체감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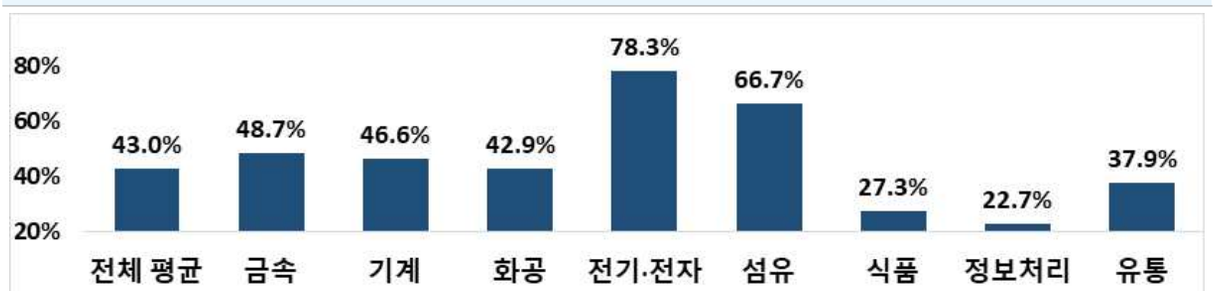
• 응답 中企의 10곳 중 4곳(43.0%)이 공급망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공급망 변화 체감하지 못함(47.7%), 공급망 변화 예상(9.0%) 순으로 응답

글로벌 공급망 변화 체감도 (n=300개사)

- 공급망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및 자체 원자재 조달(73.9%)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전기·전자(78.3%), 섬유(66.7%) 등은 공급망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통(37.9%), 식품(27.3%), 정보처리(22.7%) 업종은 낮은 편으로 조사됨

업종별 글로벌 공급망 변화 체감도 (n=300개사)



• 매출액과 업력이 높을수록 공급망 변화 체감도 높은 편임

- 국내 자체 수급·납품하는 소규모 기업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에 소속된 기업들이 공급망 변화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매출액별 공급망 변화 체감 응답률 : 33.3%(5억 미만), 42.9%(10억 미만), 41.5%(50억 미만), 41.2%(100억 미만), 46.9%(300억 미만), 57.1%(300억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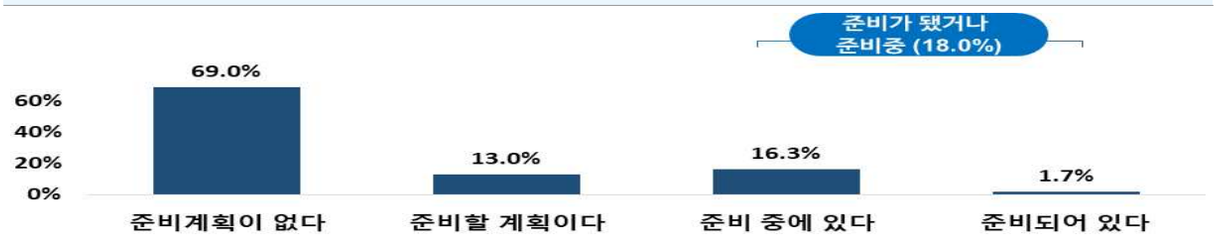
* 업력별 공급망 변화 체감 응답률 : 37.0%(업력 7년 미만), 45.2%(업력 7년 이상)

• (내수/수출) 수출기업의 “공급망 변화 체감” 응답 비율은 52.4%로 내수기업 41.5%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출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비중이 높아 체감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글로벌 공급망 변화 준비 수준 : 中企 10곳 중 7곳 준비계획 없음

•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 中企의 10곳 중 7곳(69.0%)은 관련 준비계획이 없었으며,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18.0%에 불과하여, 공급망 변화 대응에 대한 준비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도 (n=30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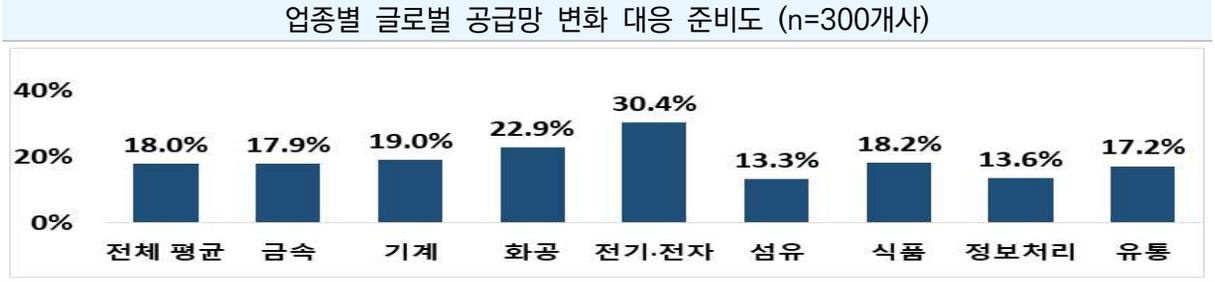


• 업종별로 전기·전자, 화공, 기계 등의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아, 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화공, 기계 업종은 배터리(화학), 자동차부품, 반도체 장비 등 국내 중소기업의 10대 수출품목이 포함된 업종으로 준비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中企 수출 10대 품목 : 1위 플라스틱(배터리 분리막 등), 2위 화장품, 3위 자동차부품, 4위 합성수지, 5위 반도체 제조용 장비, 6위 의약품 등 (중소벤처기업부, 2022)

업종별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도 (n=300개사)



• 공급망 변화에 대한 체감 인식이 높은 업종이 준비도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조사됨

- 공급망 변화 체감도가 높았던 전기·전자 업종은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이라는 응답비율이 30.4%로 전체 평균(18.0%) 대비 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섬유 업종은 변화 체감도는 높았으나, 준비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공급망 변화 체감” 응답 비율 : 전기·전자(78.3%), 섬유(66.7%), 금속(48.7%), 기계(46.6%), 화공(42.9%), 유통(37.9%), 식품(27.3%), 정보처리(22.7%) - 전체(43.0%)

- 공급망 변화 체감도가 낮았던 정보처리, 유통 업종은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응답 비율이 각각 13.6%, 17.2%로 전체(18.0%) 대비 준비도도 저조한 편임. 식품 업종은 체감도는 낮았으나, 준비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함

• (내수/수출) 수출기업의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응답 비율은 33.3%로 내수기업 15.5%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 수준이 내수기업 대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공급망 참여 비중이 높아 준비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수도권 기업의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응답 비율은 20.1%로 비수도권 15.9% 대비 높아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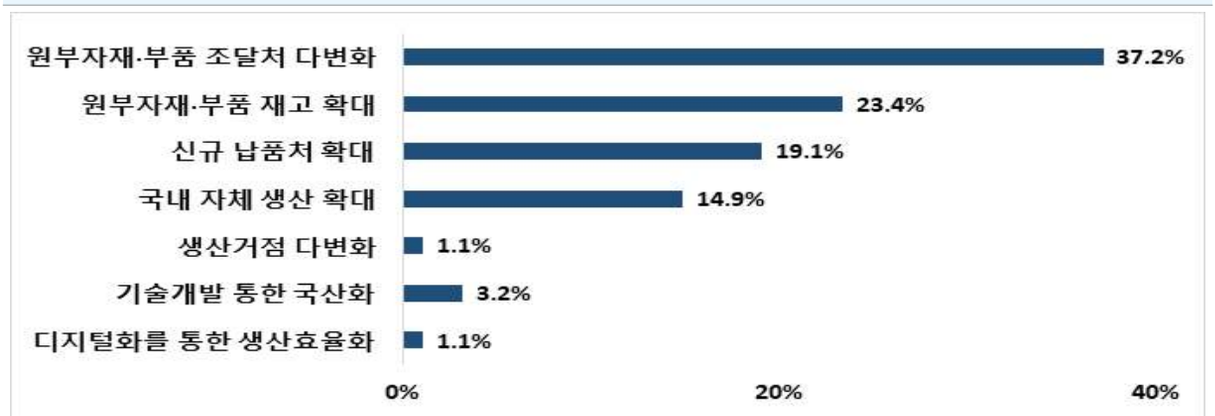
*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응답 비율 : 수도권 (20.1%), 비수도권(15.9%) / 전체 평균 (18.0%)

3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책 방안 : 조달처 다변화(37.2%), 재고 확대(23.4%)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책 방안으로 원·부자재 부품 조달처 다변화(37.2%), 원부자재·부품 재고 확대(23.4%) 등이 높았으며,

- 중장기적인 대책인 신규 납품처 확대(19.1%), 국내 자체 생산 확대(14.9%),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3.2%), 디지털화 등을 통한 생산효율화(1.1%), 생산거점 다변화(1.1%) 순으로 나타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책방안 (n=93개사)*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계획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한 93개사

• 업종별로 금속과 기계 업종은 조달처 다변화와 함께, 신규 납품처 확대(30.0%, 34.8%)를, 유통업종은 원자재·부품 재고 확대(31.3%)를 대응 대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타업종과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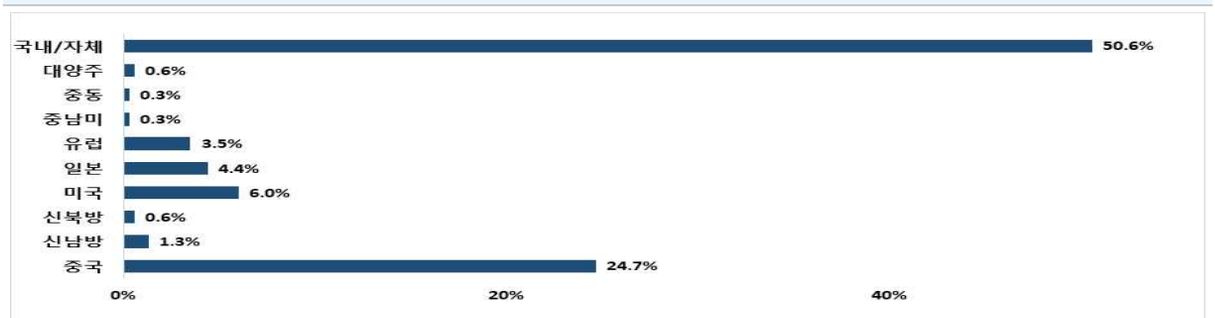
2 원자재 수급 현황

1 원자재 조달처 : 국내 조달·자체 생산(50.6%), 중국(24.7%) 수입

• 원자재 주요 조달처는 국내 조달 또는 자체 생산(50.6%)이 가장 높았으며,

- 업종별로 전기·전자, 섬유의 경우 국내 조달·자체 생산 비중은 각각 29.6%, 37.5%로 전체 대비(50.6%) 대비 낮아, 해당 업종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내 생산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원자재 조달처 (n=300개사)



• 수입국으로는 중국(24.7%), 미국(6.0%), 일본(4.4%), 유럽(3.5%), 신남방(베트남 등 아세안, 인도 등)(1.3%), 신북방(러시아, 중앙아시아)(0.6%), 호주 등 대양주(0.6%) 등으로 응답

- 업종별로 섬유와 전기·전자는 중국 수입 응답 비율이 각각 50.0%, 44.4%로 전체(24.7%) 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전기·전자 업종은 미국과 일본 수입 응답 비율이 각각 11.1%로 전체 평균(6.0%, 4.4%) 대비 약 2~3배 이상 높았고, 기계 업종은 유럽 수입 응답비율이 16.9%로 전체 평균(3.5%) 대비 5배 이상 크게 높았음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중국	신남방	신북방	미국	일본	유럽	중남미	중동	대양주	국내/자체
전체		300	24.7	1.3	0.6	6.0	4.4	3.5	0.3	0.3	0.6	50.6
업종	금속	39	28.2	0.0	2.6	0.0	10.3	0.0	0.0	0.0	0.0	59.0
	기계	58	23.1	0.0	0.0	12.3	4.6	16.9	0.0	0.0	0.0	43.1
	화공	35	29.7	0.0	2.7	5.4	2.7	0.0	0.0	0.0	0.0	56.8
	전기·전자	23	44.4	0.0	0.0	11.1	11.1	0.0	0.0	0.0	0.0	29.6
	섬유	15	50.0	6.3	0.0	6.3	0.0	0.0	0.0	0.0	0.0	37.5
	식품	22	17.4	0.0	0.0	8.7	4.3	0.0	0.0	0.0	8.7	60.9
	정보처리	22	9.1	4.5	0.0	0.0	0.0	0.0	0.0	0.0	0.0	40.9
	유통	58	18.6	1.7	0.0	5.1	1.7	0.0	1.7	1.7	0.0	61.0
	기타	28	14.3	3.6	0.0	0.0	3.6	0.0	0.0	0.0	0.0	53.6

• 원자재 조달처별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수준은 국내 자체 조달 및 생산 기업의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응답비율은 7.5%로 전체(18.0%)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일본 수입비중이 높은 업체의 준비수준은 57.1%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정부에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으로 자립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對日의존도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준비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등 신남방, 러시아 등 신북방 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은 표본수가 작아 일반화는 어렵지만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응답 비율은 각각 25.0%, 0.0%로 준비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 조달처 DB 구축 등을 통한 대체 수입처 발굴 등 다변화 지원 필요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준비되어 있음	준비 중	준비할 계획	준비계획 없음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전체		300	1.7	16.3	13.0	69.0	18.0
주요 조달처	중국	78	2.6	34.6	17.9	44.9	37.2
	신남방	4	0.0	25.0	50.0	25.0	25.0
	신북방	2	0.0	0.0	0.0	100.0	0.0
	미국	19	5.3	26.3	31.6	36.8	31.6
	일본	14	7.1	50.0	14.3	28.6	57.1
	유럽	11	9.1	27.3	27.3	36.4	36.4
	중남미	1	0.0	0.0	0.0	100.0	0.0
	중동	1	0.0	0.0	100.0	0.0	0.0
	호주 등 대양주	2	0.0	50.0	0.0	50.0	50.0
	국내자체 조달 및 생산	160	1.3	6.3	7.5	85.0	7.5
	기타	4	0.0	25.0	0.0	75.0	25.0
	없음	20	0.0	0.0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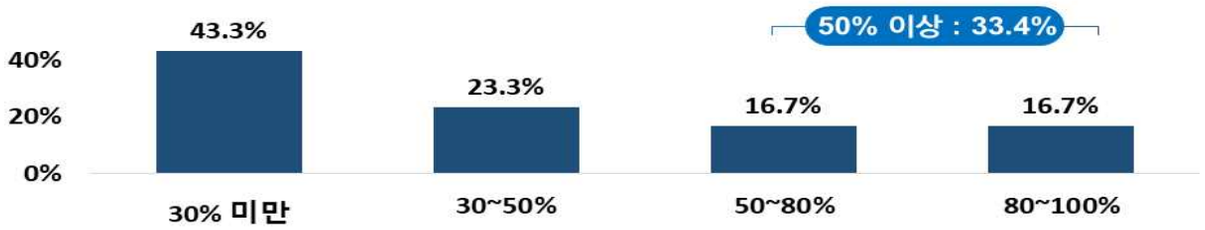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계획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한 93개사

2 원자재 주요 수입국 의존도 : 30% 미만(43.3%)

• 원자재 주요 수입국 의존도는 30% 미만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30~50% 미만(23.3%), 50~80%(16.7%), 80~100%(16.7%) 등 순으로 응답

- 원자재 주요 수입국의 의존도가 50% 이상이라는 응답비율도 33.4%로 상당한 편

원자재 주요 수입국 의존도 (n=120개사)*



* 원자재를 수입한다고 응답한 기업 120개사

- 업종별 원자재 주요 수입국 의존도가 “50% 이상” 이라는 응답비율은 식품(50.0%), 섬유(44.4%), 금속(43.8%), 화공(42.9%) 순으로 전체 대비(33.4%) 대비 상당히 높아 해당 업종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3 원자재 수입 형태 : 원재료(55.2%), 중간재(29.1%), 완제품(15.7%)

• 원자재 수입 형태로는 원재료(55.2%)가 가장 많았으며, 중간재(29.1%), 완제품(15.7%)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식품, 섬유는 원재료 수입 비중이 각각 87.5%와 77.8%로 전체(55.2%) 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기계(48.5%)는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유통(45.8%)은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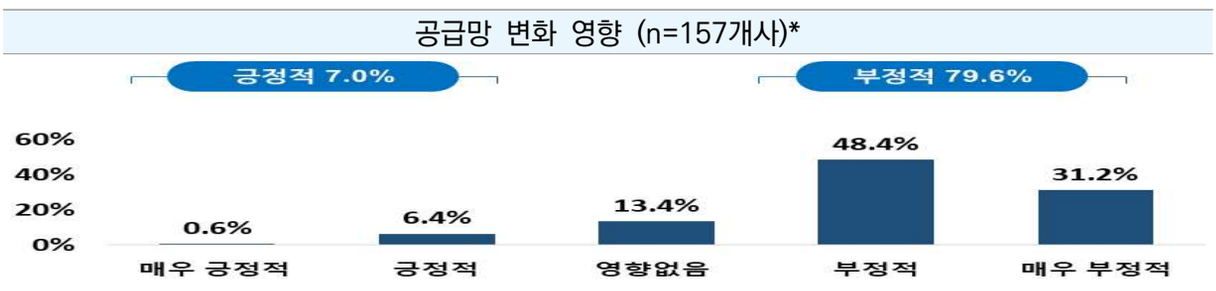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원재료	중간재	완제품
전체		120	55.2	29.1	15.7
업종	금속	16	64.7	23.5	11.8
	기계	30	39.4	48.5	12.1
	화공	14	73.3	26.7	0.0
	전기·전자	15	57.9	31.6	10.5
	섬유	9	77.8	11.1	11.1
	식품	8	87.5	12.5	0.0
	정보처리	3	66.7	33.3	0.0
	유통	19	37.5	16.7	45.8
	기타	6	50.0	33.3	16.7

3 공급망 변화에 따른 영향과 어려움

1 공급망 변화 영향 : 응답 中企 10곳 중 8곳(79.6%) 부정적 영향

- 공급망 변화를 체감하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한 中企의 10곳 중 8곳(79.6%)이 공급망 변화로 인해 “부정적(매우 부정적(31.2%) + 부정적(48.4%))”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이라 응답한 기업은 7%에 불과(매우 긍정적(0.6%) + 긍정적(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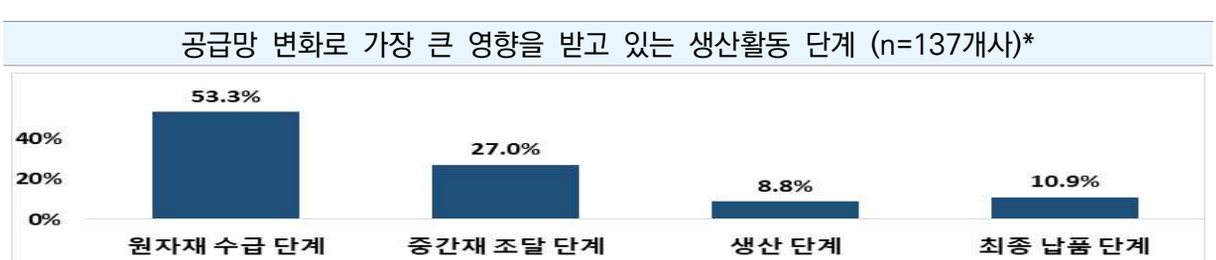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체감하거나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157개사

- 업종별로 전기·전자는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100.0%)이 전체 평균(79.6%)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기술 품목 대상 미국, EU 등 주요국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기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내수/수출) 내수기업(81.4%)이 수출기업(71.4%) 대비 “부정적 영향”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변화 등에 상대적으로 준비가 취약한 내수기업 대상 지원 확대 필요

2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단계 : 절반 이상(53.3%) 원자재 수급 단계

-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활동 단계는 원자재 수급 단계(53.3%)로 이어서, 부품 등 중간재 조달 단계(27.0%), 최종 납품 단계(10.9%), 생산단계(8.8%) 순으로 나타남



*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137개사

• 업종별로 화공과 식품 업종은 “원자재 수급 단계”가 71.4%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 전기·전자는 “원자재 수급 단계(47.4%)” 와 함께 “중간재 조달단계(47.4%)”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섬유는 “원자재 수급(44.4%)”과 함께, “생산 단계(22.2%)”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8.8%) 대비 2배 이상 높아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섬유산업은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생산 단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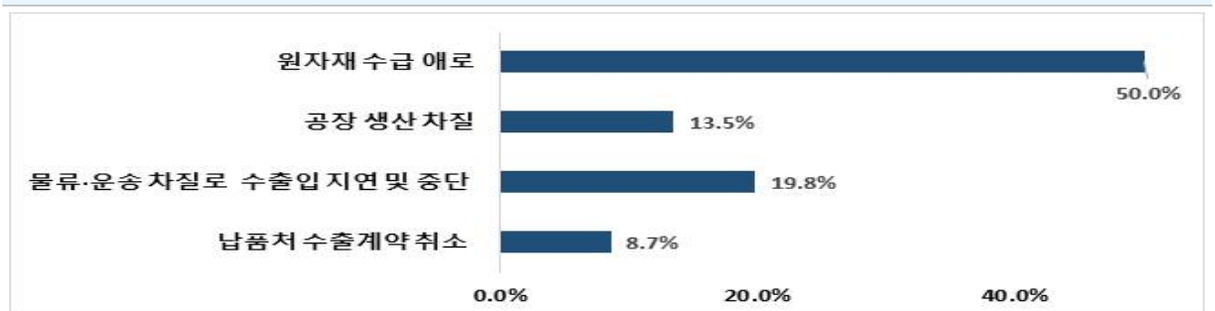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원자재 수급 단계	중간재 조달 단계	생산 단계	최종 납품 단계
전체		137	53.3	27.0	8.8	10.9
업종	금속	19	63.2	26.3	5.3	5.3
	기계	31	48.4	25.8	16.1	9.7
	화공	14	71.4	14.3	7.1	7.1
	전기·전자	19	47.4	47.4	0.0	5.3
	섬유	9	44.4	22.2	22.2	11.1
	식품	7	71.4	28.6	0.0	0.0
	정보처리	6	33.3	16.7	33.3	16.7
	유통	25	44.0	24.0	4.0	28.0
	기타	7	71.4	28.6	0.0	0.0

3 공급망 변화로 가장 큰 어려움 : 원자재 수급 애로(50.0%)

• 공급망 변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中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자재 수급 애로(50.0%)였으며, 이어서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수출입 지연·중단(19.8%), 자사공장 또는 위탁 공장으로부터의 생산 차질(13.5%), 납품처로부터 수출계약 취소 등 해외 시장 수요 감소(8.7%) 순으로 나타남

공급망 변화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n=126개사)*



*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126개사

- 매출액 규모별로 규모가 커질수록 “물류·운송차질로 인한 수출입 지연 및 중단”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원자재 수급 애로”에 대한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식품(71.4%), 기계(58.6%), 화공(57.1%) 등은 원자재 수급 애로가, 섬유 업종은 자사·위탁 공장으로부터의 생산차질이(28.6%), 유통, 화공은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수출입 지연 및 중단(43.5%, 28.6%)분야의 애로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내수기업은 수출기업 대비 원자재 수급 애로를, 수출기업은 내수기업 대비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수출입 지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원자재 수급	자사공장, 위탁공장 생산차질	물류·운송 차질로 수출입 지연·중단	납품처 수출계약 취소	기타
전체		126	50.0	13.5	19.8	8.7	7.9
매출액	5억 미만	4	100.0	0.0	0.0	0.0	0.0
	10억 미만	12	75.0	8.3	0.0	8.3	8.3
	50억 미만	57	43.9	15.8	19.3	8.8	12.3
	100억 미만	17	47.1	5.9	29.4	17.6	0.0
	300억 미만	22	50.0	22.7	22.7	0.0	4.5
	300억 이상	13	38.5	7.7	30.8	15.4	7.7
업종	금속	17	52.9	5.9	17.6	5.9	17.6
	기계	29	58.6	17.2	13.8	6.9	3.4
	화공	14	57.1	0.0	28.6	7.1	7.1
	전기·전자	19	52.6	15.8	10.5	10.5	10.5
	섬유	7	42.9	28.6	28.6	0.0	0.0
	식품	7	71.4	14.3	0.0	0.0	14.3
	정보처리	5	40.0	20.0	0.0	20.0	20.0
	유통	23	21.7	13.0	43.5	17.4	4.3
	기타	5	80.0	20.0	0.0	0.0	0.0
내수/수출	내수기업	106	50.9	13.2	18.9	9.4	7.5
	수출기업	20	45.0	15.0	25.0	5.0	10.0

4 공급망 변화로 인한 기회요인 : 중국 대체재로 국내 납품 증가(72.7%)

- 공급망 변화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中企*의 가장 큰 기회요인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로 국내 판매 증가(72.7%), 중국 진입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신규 글로벌 공급망 진출(27.3%) 순으로 나타남

* 응답사례 1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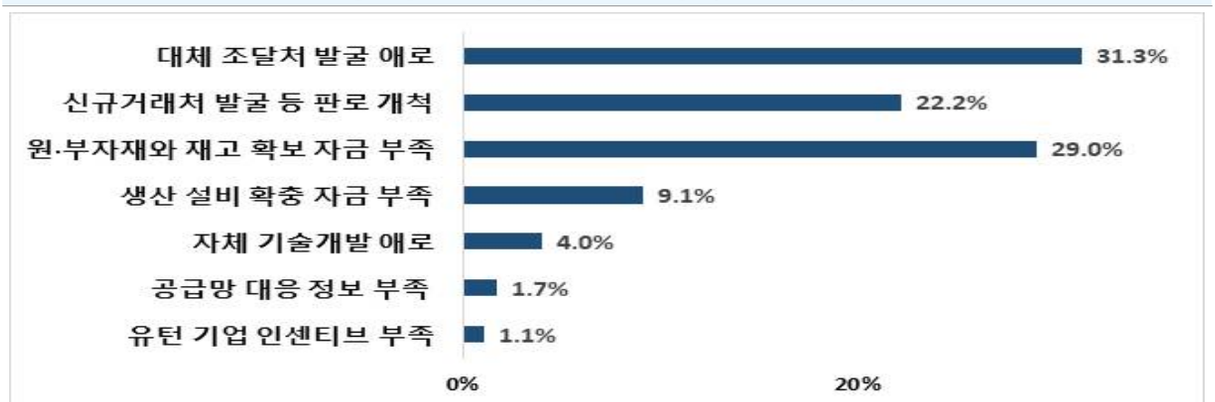
4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정책 ►►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애로사항 : 대체 조달처 발굴·자금 부족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체 조달처 발굴 애로(31.3%)와 원·부자재 구입과 재고 확보 자금 부족(2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이어서 신규거래처 발굴 등 판로 개척(22.2%), 국내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자금 부족(9.1%), 자체 기술개발 애로(4.0%), 생산거점 다변화 등 공급망 대응을 위한 정보 부족(1.7%), 유턴 기업 대상 세제, 금융 등 인센티브 부족(1.1%) 순으로 응답

공급망 변화 대응시 애로사항 (n=175개사)*



* 없음 응답을 제외한 175개사

•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대체 조달처 발굴 애로” 보다는 “원부자재 구입과 재고 확보를 위한 자금부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대체 조달처 발굴 애로	판로 개척	원부자재, 재고 확보 자금 부족	생산 설비 확충 자금 부족	자체 기술 개발 애로	정보 부족	인센티브 부족	기타
전체		175	31.3	22.2	29.0	9.1	4.0	1.7	1.1	1.7
매출액	5억 미만	7	14.3	28.6	57.1	0.0	0.0	0.0	0.0	0.0
	10억 미만	18	11.1	22.2	38.9	16.7	5.6	0.0	0.0	5.6
	50억 미만	74	34.7	21.3	25.3	10.7	4.0	1.3	0.0	2.7
	100억 미만	23	39.1	13.0	26.1	13.0	4.3	4.3	0.0	0.0
	300억 미만	37	29.7	18.9	35.1	5.4	5.4	2.7	2.7	0.0
	300억 이상	15	40.0	46.7	6.7	0.0	0.0	0.0	6.7	0.0

• 업종별로 금속, 화공은 원부자재 구입과 재고 확보 자금 부족(44.0%, 34.8%)을, 정보처리는 판로개척(42.9%)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또한, 화공과 식품은 “생산설비 확충자금 부족” 응답비율이 각각 25.0%, 21.7%로 전체 대비 2배 이상 높아, 해당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대체 조달처 발굴 애로	판로 개척	원부자재, 재고 확보 자금 부족	생산 설비 확충 자금 부족	자체 기술 개발 애로	정보 부족	인센티브 부족	기타
전체		175	31.3	22.2	29.0	9.1	4.0	1.7	1.1	1.7
업종	금속	25	24.0	24.0	44.0	4.0	4.0	0.0	0.0	0.0
	기계	38	31.6	31.6	21.1	2.6	2.6	0.0	5.3	5.3
	화공	22	21.7	17.4	34.8	21.7	0.0	4.3	0.0	0.0
	전기·전자	19	42.1	15.8	21.1	10.5	5.3	0.0	0.0	5.3
	섬유	11	36.4	27.3	18.2	18.2	0.0	0.0	0.0	0.0
	식품	12	41.7	0.0	25.0	25.0	8.3	0.0	0.0	0.0
	정보처리	7	42.9	42.9	14.3	0.0	0.0	0.0	0.0	0.0
	유통	28	35.7	17.9	32.1	3.6	10.7	0.0	0.0	0.0
	기타	13	15.4	23.1	38.5	7.7	0.0	15.4	0.0	0.0

2 필요 지원 정책 : 정책자금(47.9%), 대체처 발굴(15.3%), 원자재 비축(12.7%)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는 원부자재 구입과 재고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32.3%)과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15.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이어서 대체 조달처 발굴(15.3%), 핵심 원자재 비축 확대(12.7%), 신속 통관 및 물류지원(11.6%), 기술개발 지원(5.7%), 공급망 변화 대응 컨설팅(1.9%), 사업 구조혁신 지원 및 공급망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1.7%) 순으로 나타남

공급망 변화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 (n=191개사)*

* 없음 응답을 제외한 191개사

3 기타 의견

구 분	주요내용
자금지원	◆ 자재구입과 원자재 가격 상승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원자재 재고 비축 지원 ◆ 운전자금 및 개발기술 자금 확대 ◆ 소규모, 친환경 제조업종 지원 확대
수출	◆ 통관 규제 완화 ◆ 공급망 확충, 선적 지원
기타	◆ 자재비 원가 상승비 반영 ◆ 중소제조업체 대상 규제 및 세금 부담 완화 ◆ 물가상승, 물류비 등 가격 상승 규제

03 정책적 시사점

1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변화 체감도와 준비 수준 ►►

○ 응답 中企의 10곳 중 4곳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으나,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18.0%에 불과하여, 공급망 대응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 中企의 42.0%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으나, 69.0%는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계획이 없었으며,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18.0%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 수준은 상이했으며, 전기·전자, 화공, 기계 업종은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 응답 비중이 각각 30.4%, 22.9%, 19.0%로 전체 18.0% 대비 높아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 또한, 수출기업(33.3%)이 내수기업(15.5%) 대비, 수도권 기업(20.1%)이 비수도권(15.9%) 대비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수출여부, 지역별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준비도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지역별 정책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맞춤화된 지원 필요

2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영향과 어려움

○ 응답 中企는 원자재 수급 단계(53.3%)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관련 가장 큰 어려움도 원자재 수급 애로(50.0%)인 것으로 나타나, 원자재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체감하거나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한 中企의 대부분(79.6%)은 공급망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활동 단계는 원자재 수급단계(53.3%)로 나타나,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원자재 수급 단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검토 필요

- 또한, 업종별로 화공·식품 업종은 원자재 수급 단계(71.4%)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전기·전자는 중간재 조달 단계(47.4%)에서, 섬유는 생산단계(22.0%)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활동 단계가 상이하여, 업종별 특화된 지원 정책 필요

○ 원자재 수급부터 최종 납품단계까지 생산활동 단계별 글로벌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공급망 관련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자재 수급 애로(50.0%)였으며,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수출입 지연(19.8%), 공장 생산 차질(13.5%) 등 공급망 관련 다양한 리스크에 중소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 단계별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지원 확대

[표 1. 생산활동 단계별 글로벌 공급망 지원체계(안)]

생산단계	지원내용
원자재 수급단계	• 원부자재 구입 및 재고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 수출바우처, 민간네트워크 사업 내 대체 거래처 발굴 등 글로벌 공급망 대응 특화 지원서비스 추가 및 우대 지원 검토
중간재 조달단계	•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생산거점 시장조사, 현지지원 등
생산단계	• 국내 복귀 기업 시설투자 및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핵심품목 기술개발과 생산 지원을 위한 Top-down 방식의 특구 지정
최종 납품단계	• 운송차질, 물류지연 애로 기업 대상 해상·항공 운임 등 물류비 지원(물류바우처) • 핵심품목 신속 통관 등 지원

3 주요 업종별 맞춤형 공급망 대응 지원책 필요

○ 업종별로 원자재 주요 수입국 및 수입형태 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맞춤형 공급망 대응 지원 프로그램 수립 필요

- 응답 中企의 원자재 주요 조달처로는 국내 조달(50.6%)에 이어, 중국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업종별로 전기·전자와 섬유 업종이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업종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 확대 필요
- 전기·전자 업종은 중국 이외에, 미국, 일본 수입 비율(11.1%. 11.1%)도 전체 대비(6.0%, 4.4%) 높았으며, 기계 업종은 유럽 수입 비율(16.9%)이 전체 대비(3.5%)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주요 수입국의 의존도가 50% 이상이라는 응답도 33.4%로 상당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가별 대체 조달처 DB 구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산화 추진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 뒷받침 필요
- 또한, 업종별로 식품·섬유는 원재료 수입 비중이, 기계는 중간재 수입 비중, 유통은 완제품 수입 비중이 높아 업종별 주요 원자재 수입국과 수입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4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과 필요 지원 방안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시 애로사항으로는 대체 조달처 발굴과 원부자재 구입 자금 부족 등의 응답이 높아, 공급망 다변화와 금융지원 확대 필요

- 응답 中企는 공급망 변화 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체 조달처 발굴(31.3%)과 원부자재 구입과 재고확보를 위한 자금 부족(29.0%) 등의 응답이 높아 이러한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공급망 대응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주요 핵심 원·부자재의 중장기 확보 등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과 구매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동화 자금 지원 강화
  - 대체 조달처 발굴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 또한, 판로 개척, 국내 생산 설비 확충 자금 부족, 자체 기술개발 등에 대한 애로도 상당하여, 핵심 부품·소재 분야 R&D 지원을 통한 국산화 촉진 및 국내 생산 기반 구축·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 필요

5 중소기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

○ 원자재 구입·재고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과 조달처 다변화 지원을 통한 공급망 애로 해소,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공급망 안정성 지원 강화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방향으로는 원부자재·재고확보(32.3%) 및 생산설비 확충(15.6%)을 위한 정책자금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대체 조달처 발굴(15.3%), 핵심 원자재 비축 확대(12.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화와 조달처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필요

❶ (금융지원)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원부자재 구입 및 재고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원유, 철강, 알루미늄 등 전반적인 원자재 전반이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원유 상승으로 인한 도료 원자재, 원육, 곡물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원유(두바이유, 달러/배럴) : ('20.1) 64.3 → ('21.2) 60.9 → ('21.10) 81.6 → ('22.2) 92.3 ('21.2월 대비 51.6% ↑)

* 열연(원/KG) : ('20.1) 702 → ('21.2) 923 → ('21.10) 1,318 → ('22.2) 1,263 ('21.2월 대비 36.8% ↑)

* 알루미늄 (달러/톤) : ('20.1) 1,772 → ('21.2) 2,080 → ('21.10) 2,955 → ('22.2) 3,261 ('21.2월 대비 56.8% ↑)

* 자료 : 원유(한국석유공사, 국제석유가격), 열연(산업통상자원부, 열연코일), 알루미늄(조달청, 주요 비철금속 국제가격동향)

- 가격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비용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

> • (철강) **[(유)***업, 선박구성품]** 선박 철부품 제조기업으로 '21년 철강 원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여 원자재 수급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21년 하반기에 납품단가가 일부 상승하였으나 원가상승 대비 약 30%에 그쳐 수익성 개선 애로
>
> • (비철금속) **[(주)디****, 자동차 프레임 부품]** 자동차 부품용 알루미늄 환봉 제조기업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1.5배가 급등하여 원재료 매입량 급감으로 생산량 유지가 어려워짐. 원청업체에 납품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임
>
> • (석유화학(도료)) **[한***칼(주), 도료 및 합성수지 제조]** 페인트, 점착제 등 도료 및 합성수지 제작 후 납품하는 제조기업.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난을 겪고 있음. 또한 도료시장의 경쟁 심화로 납품가 인상에 제한을 받아 영업이익 악화가 예상됨

[표 2.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안)]

구분		사업 내용
공급망 애로 해소	정책금융	• 원부자재 구입 및 재고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 원자재 수급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구매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동화자금
	혁신바우처 컨설팅	• 제조기업 대상 컨설팅, 기술, 마케팅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 – 원자재 가격 급변에 따른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재고관리 분야 컨설팅 지원
	공급망 다변화	•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대상 해외 국가별 대체 조달처 DB 구축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지원 • 대체 수입처 발굴과 생산거점 시장 조사 등 공급망 대응 특화 프로그램 확대 (수출바우처, 민간네트워크 사업 지원서비스 추가 등)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인력지원	• 자립화 필요 핵심기술(반도체, 소부장 등)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등을 통한 첨단기술 인력 양성 지원 (2~3년)
	기술교류	• 선진국 기술도입 등 개방형 기술협력을 통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지원
	공급망 디지털화	• 생산 프로세스 효율화, 공급망 디지털화 등 인프라 지원 및 제조현장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스타트업과 협업 비즈니스 모델	• B2B 플랫폼, 수출입 물류 관리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공급망 대응 기반 구축	국내 생산 기반 마련	• 핵심품목 국내생산 확충과 리쇼어링 기업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세제지원
	특구 지정	• 핵심품목 기술개발과 생산지원을 위한 특구지정 후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집중 지원
	지역·업종 맞춤형 공급망 진출 지원	• 국내 현장거점은 지역·업종별 유망기업을 선별, 해외거점은 현지 공급망 유망 시장 및 수요를 발굴하여, 현지 공급망 수요와 국내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 경남 자동차부품 기업 미국 공급망 진출 전략 프로그램 등

❷ (다변화 지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대상 국가별 대체 조달처 DB 구축과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생산 거점 시장 조사 등 공급망 대응 특화 프로그램 확대

❸ (스타트업과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B2B 원자재 플랫폼, 수출입 물류 관리 플랫폼, 공급망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연결, 중소기업에게는 대체 수입처 발굴과 물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대상 국내 협업 파트너 발굴과 고객 창출 기회 제공

* (중소기업) 공급망 다변화, 수출입 물류 관리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사업화 및 네트워크 구축

* 농축산물 신선식품 B2B 플랫폼 스타트업((주)트릿지(韓)) ↔ 국내 농축산물 유통, 제조기업 등

* 실시간 화물 모니터링 지원 스타트업((주)트레드링스(韓)) ↔ 국내 수출입 기업 등

KOSME 이슈포커스

참고 문헌

- 중소벤처기업부. (2022.1.1). 2021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 관계부처 합동. (2020.7.9).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 대한상공회의소. (2020.9.27). 국내 제조기업의 'GVC 재편 전망 및 대응실태' 조사.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9.9.9). 일본 수출규제의 대-중소기업 공급망 측면 영향 분석.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11.26).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 외교부 보도자료. (2022.2.14).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 전경련 보도자료. (2020.5.31). 기업 1/3 이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책 못찾아.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2022.3.4.)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열연코일. https://www.motie.go.kr/motie/py/sa/todayeconomyindexprice/todayEconomyindexPri.jsp(검색일: 2022.3.4.)
- 조달청. 주요 비철금속 국제가격동향. https://www.index.go.kr/por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78(검색일: 2022.3.4.)

KOSME

발 행 인 김학도
편 집 인 정책연구실
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273,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